

차이코프스키 곡으로만

광주시향, 29일 문예회관서 정기연주회
지휘 여자경·바이올리니스트 김현지 협연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여성지휘자가 광주시향과 호흡을 맞춘다.

오는 29일 오후 8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정기연주회에 참여하는 여자경이다.

한양대를 거쳐 비엔나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한 여씨는 지난 200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콩쿠르에서 3등상을 수상했으며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등의 객원지휘자로 참여했다. 현재는 프리임필 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로 활동중이다.

여씨는 차이코프스키 곡으로만 레퍼토리를 짰다.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을 협연하는 이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지이다.

지난달 열렸던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광주시향 지휘자의 취임연주회에 객원 악장으로 참여, 광주시향과는 이미 인연이 있다.

서울대 출신으로 미국 이스턴만 음악학교를 졸업했으며 귀국 후 서울마로크합주단 단원으로 활동중이다. 지난해 서울시향과 협연했고 바흐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연주회, 프로코피예프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피날레곡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 마단조 작품64'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 이번 연주회부터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www.gjart.net)에서 예매가증하다. 문의 062-510-92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휘 여자경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지

중 우한음악학원 동방교향악단 공연

27일 전남대 대강당·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전남대 예술대학은 지난해 중국 우한음악학원과 관현악단 연주회 개최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우한음악학원 동방교향악단이 오는 27일(오후 7시·전남대 대강당)과 28일(오후 7시·빛고을 시민문화관) 공연을 갖는다. 전남대 음악학과 관현악단은 지난해 우한음악학원 편중음악과 장강대학 음악대에서 공연을 가졌었다.

중국동방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재직중인 평자평(사진)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중국 작곡가들의 음악과 우리에게도 친숙한 클래식 곡들을 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차이나 서곡 1번', 후즈핑이 협연하는 '열후 협주곡 2번 베이징의 향수', 요한스트라우스의 '바퀴' 서곡, 영화 '스타워즈' 주제곡, 슈만의 '교향곡 G단조'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



설렌다... 기대된다...

호남예술제

28일 막 오른다

실용음악·만화·일러스트 분야 신설... 호남예술제 출신 해외서 잇단 활약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56회 호남예술제가 28일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과 남부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음악·무용·국악·작문·미술 등 모두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광주일보사 창간 3년 후인 지난 1955년에 첫발을 내디딘 호남예술제는 광주일보사가 지역의 예술 꿈나무 발탁을 위해 시작한 행사로 호남예술제를 통해 '예술가의 꿈'을 키워준 꼬마 예술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참여한 인원만 56만여명에 이르고 특히 강세를 보여온 음악과 무용 부문 수상자들은 현재 교육자로, 연주인으로 일가를 이루었다.

음악 분야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씨를 비롯해 갈예령(목포대), 김혜경·서영화(조선대), 박미애(광주대), 강숙자·정예린(전남대), 조수현(광산대)씨 등이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최근에는 젊은 연주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호남예술제 출신 젊은 음악인들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잇따른 낭보를 전했다. 호남예술제 최고상 출신인 피아니스트 최현호씨는 지난해 열린 베를린 국제음악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차지했으며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갖기도 했다.

역시 호남예술제 최고상 수상자인 첼리스트 장우리(27)씨 역시 제 6회 다비도프국제첼로콩쿠르에서 2등상을 수상했으며 테너 김기찬(34)씨는 제6회 독일 파사우국제성악콩쿠르에서 최고 영예인 1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2006년 에피날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임호열, 2008 파리 퐁티보 콩쿠르 1위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씨 등도 호남예술제를 통해 꿈을 키웠다.

무용 부문에서는 박준희·임지형·김미숙(이상 조선대) 교수와 이영애·김유미씨 등 전·현직 광주시립무용단장, 김선희(한국예술종합학교)씨 등이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올해 호남예술제의 눈에 띄는 특징은 음악 부문에서 실용음악 분야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각 대학교 음악학과에도 실용음악 전공 부문이 신설되는 등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 시범적으로 실용음악 부문 경연을 진행하며 보컬과 악기(드럼·기타·건반 등)로 나뉜 대회를 치른다.

또 미술 부문에서도 만화와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를 신설했다. 올해 경연은 28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성악 초등부 독창으로 시작하며 5월 29일 피아노 부문 경연으로 막을 내린다. 참여자가 가장 많은 미술·작문 행사는 5월 28일~6월 1일 진행되며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새싹 그리기' 대회도 열린다.

각 부문 최고상 가운데 국회의장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장학금을 수여한다. 부문별 입상자는 경연 당일 광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www.kwangju.co.kr)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와 다음날 광주일보 문화면에 발표한다.

한편 올 호남예술제의 자세한 경연 일정은 25일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발레 창작 군무 화순초.

환경의 소중함 일깨워주는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지구, 꽃 피우다'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 상록전시관은 제41회 지구의 날(22일)을 맞아 오는 6월5일까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지구, 꽃 피우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고근호·김희태·김희련·노동식·박선기·박태규·신호운·위재환씨가 참여해 환경을 소재로 한 다양한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바람' '물' '꽃 한 포기' 등 자연을 소재로, 이를 파괴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꼬집는다.

고근호씨는 찌그러진 냄비, 녹슨 농기구 등 버려진 물건을 모아 만든 조각을 선보이고, 김희태씨는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땅을 소재로 한 '땅의 소리'연작을 전시한다.

또 신호운씨는 종이를 오려 자생 식물을 위화하는 외래종의 기형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위재환씨는 천진한 웃음을 가진 어린이의 눈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어린이 환경그림 그리기 수상작 전시와 풍선아트, 고래모빌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5월5일 오전 10시30분·상록전시관 야외)와 고래사전전(5월5일~12일·상록전시관 야외) 등이 곁들여진다. 062-613-539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근호 작 '락키'

생명 과 욕망의 관계 사과로 표현

은암미술관, 5월3일까지 김광일 초대전

광주 은암미술관은 26일~5월31일 중국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족 작가 김광일씨의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사과를 통한 관념적 조형성'을 주제로 생명과 욕망의 관계를 조망한 신작을 발표한다.

이들 작품은 사과 껍질을 깎는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데, 다양한 색을 덧입혀 현실의 사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전해준다. 형형색색의 색을 띤 사과를 오묘하고, 왜곡된 생명을 느끼게 해준다.

그는 1987년 중국 동북 사범대학과 흥이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북경에 머무르며 작품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문의 062-231-529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Eve-s Smile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증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안과 옆))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엔탁가구전

4월 30일까지 특별가 판매

식탁·좌탁·거실TV장·침대

이태리 직수입 → 도소매
밀라노 5개사 한국총판

신상품 다량 전시

화정동점과 본점상품은 겹치지 않습니다.

ITALY

ITALY

홍스페이스

062-226-7567

화정동점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 본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